

『한씨연대기』에 나타난 벌거벗은 생명과 수치의 주체화

이천* · RU YI**

국문초록

본고는 황석영의 『한씨연대기』(1972)를 조르조 아감벤의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 벌거벗은 생명(bare life), 수치(shame) 개념을 분석 틀로 삼아 읽으면서, 이 소설이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몸의 정치성’과 ‘윤리적 잔여’의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하는 텍스트임을 논증한다.

본고의 분석은 세 층위로 전개된다. 먼저, 한국전쟁이라는 예외상태가 총동원령과 병원 공간의 계층적 분리, 대동강 도강 장면을 통해 몸들을 선별적으로 노출시키고 처분 가능한 존재로 재편하는 방식을 추적한다. 이어서, 군사정보대의 보고서와 익명의 투서가 한영택을 법적·정치적 주체의 자리에서 추방하는 기제로 작동함을 밝히고, 취조 장면에서 그의 몸이 ‘교수도 의사도 피난민도 아닌 고깃덩이’로 환원되는 과정을 벌거벗은 생명의 논리로 독해한다. 나아가, 동일한 예외상태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자들—의학부 학장, 서학준, 김가-박가, 적산집 사람들—이 형성하는 회색지대를 분석하면서, 각 인물에게서 발생하는 수치의 균열이 예외상태의 논리가 인간의 관계성을 완전히 소거하는 데 실패했음을

* 제1저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수료(현대문학 전공)

** 교신저자, 중국서남민족대학교 외국어문학과 강사(한국문학 전공)

증거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한씨연대기』가 분단문학의 역사적 증언으로서, 기존 연구가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던 몸의 정치성—국가 폭력이 어떻게 한 인간의 몸을 단계적으로 비인간화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 연루된 자들에게 어떠한 윤리적 잔여가 남는가를 구조적으로 형상화한 텍스트임을 논증한다.

주제어: 황석영, 『한씨연대기』, 아감벤, 예외상태, 벌거벗은 생명, 수치, 회색지대, 몸의 정치성

1. 서론

『한씨연대기』는 1972년 『창작과비평』에 발표된 이래, 한국전쟁과 분단이 낳은 역사적 비극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폭넓게 읽혀 왔다. 그러나 이 소설을 주의 깊게 읽어나가면, 곧 하나의 낯선 긴장이 감지된다. 이 소설이 집요하게 따라가는 것은 하나의 몸—전쟁 이전에는 평양 의과대학의 산부인과 교수였던 한영덕이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그 사회적 자격과 인간적 존엄을 박탈당해 가는가, 즉 하나의 온전한 몸이 ‘처리 가능한 상태’로 이행하고 끝내 아무런 존엄도 없이 소멸되는 과정이다.

이 소설에서 몸의 이동은 무엇보다 강제된 이탈의 기록이다. 한영덕은 북의 체제로부터 배제된 몸으로 단신 남하하고, 남쪽에서는 이방인이자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는 몸으로 살아간다. 북에서도 남에서도 그의 몸은 완전히 수용되지 못한 채 경계 위에 놓인다. 그리고 그 경계 위의 생명은 반복적으로 의심과 배제, 심문과 폭력의 과정을 거치며, 이름도 직분도 사라진 채 오직 처분 가능한 존재로만 남겨지는 과정을 밟는다. 소설은 이 과정을 통해, 전쟁의 예외상태가 한 인간을 어떻게 비인간화하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소설이 한영덕 한 사람만을 응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함께 같은 전쟁을 통과한 인물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타협하고, 거짓을 꾸미고, 타인을 고발하는 선택을 한다. 이들의 행위는 전쟁과 분단이 만들어낸 생존의 논리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될 때 타인의 생명은 거래되고 처분될 수 있는 자원으로 재편된다. 이처럼 소설은 국가 권력의 폭력과 생존의 논리가 공모하면서, 인간을 점차 비인간적 상태로 밀어 넣는 구조를 동시에 그려낸다.

한영덕은 전보 한 통으로 전달되는 죽음을 맞이하며, 소설은 그 죽음을 슬픔이 아닌 ‘그 시대의 종말’로 서술한다. 주목할 것은 이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도달하는가이다. 한영덕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단계적으로 그 사회적 자격을 상실해 왔다—의사의 몸에서 이방인의 몸으로, 이방인의 몸에서 심문받는 몸으로, 그리고 마침내 전보 한 통으로 처리되는 몸으로. 죽음은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이미 진행되어 온 몸의 소멸 과정이 도달한 종결에 가깝다. 사회적으로 승인된 의미를 잃은 채 조용히 지워지는 이 몸 앞에서, 『한씨연대기』는 분단문학의 역사적 증언으로서 기존 연구가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물음을 제기하는 텍스트로 읽힌다. 전쟁의 예외상태는 어떻게 한 인간의 몸을 이름도 직분도 없는 상태로 환원시키는가. 국가 폭력과 생존의 논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며 한 몸을 ‘처리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가. 나아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영덕의 몸에 개입하게 된 인물들에게, 그 몸의 소멸은 어떠한 수치의 흔적을 남기는가.

『한씨연대기』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세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작품을 분단과 이데올로기, 국가폭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읽는 연구들이다. 둘째, 작품의 언어와 서사 양식에 주목하여 황석영 문학의 미학적 특질을 해명하려는 연구들이다. 셋째, 원작 소설을 넘어 시각예술과 연극 등으로 확장된 수용 양상을 검토하는 매체 횡단적 연구들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중심으로 『한씨연대기』에 대한 기존 논의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본고의 개입 지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한씨연대기』에 대한 가장 지배적이고 오래된 연구 흐름은 이

작품을 한국전쟁과 분단 체제가 낳은 역사적 비극의 서사로 파악하는 방향이다. 안남연은 『한씨연대기』를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상처와 이데올로기적 희생의 서사로 독해하며, 한영덕을 국가 폭력에 노출된 수난자로 위치시킨다.¹⁾ 같은 맥락에서 김정은이 역시 이 작품에서 “국가적 이데올로기와 비정한 사회 속에서 평범한 한 개인이 겪는 비극적인 삶”을 읽어 내면서, 황석영 70년대 소설의 역사인식을 분단과 민중 휴머니즘의 측위에서 정리한다.²⁾ 한편 임기현은 판본 비교라는 방법론을 통해 연구의 지평을 확장한다. 그는 초판(1972)에서 후속 판본에 이르는 개작의 궤적을 추적함으로써, 분단의식이 단일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역사인식과 함께 변모해 왔음을 논증한다.³⁾ 이들 연구는 작품이 놓인 역사적 맥락과 냉전 체제가 개인에게 가한 구조적 폭력을 유효하게 해명한다.

둘째, 분단 이데올로기 중심의 독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부터 출발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유승환은 기존 황석영 연구가 지나치게 리얼리즘론의 반영론적 범주에 머물렀음을 지적하고, 황석영 문학이 지니는 고유한 언어와 양식적 특성이 간과되어 왔다고 비판한다. 그는 방언과 구술적 담론의 소설적 도입을 단순한 민중 지향의 표지가 아니라, 문학어의 재편이라는 더 넓은 기획 속에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⁴⁾

셋째, 『한씨연대기』는 문학 연구의 경계를 넘어 시각예술과 연극의 영역에서도 주목받아 왔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매체 횡단적 연구 역시 선행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미술사 분야에서는 유혜종이 민정기가 1984년에 제작한 13장의 에칭 연작을 분석하면서, 황석영의 소설이 시각언어로 재매개되는 과정에서 권력 구조와 이데올로기의 폭력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탐구한다.⁵⁾ 연극 연구 쪽에서는 김미영이 1985년 연우

1) 안남연, 「황석영 소설의 역사인식과 민중성 - 황석영의 1970년대 소설 연구」, 『상허학보』 13, 상허학회, 2004, 507~526쪽.

2) 김정은, 「황석영 소설 연구 70년대 중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3.

3) 임기현, 「텍스트 개작을 통해 본 작가의 분단의식 변모과정 : 황석영의 <한씨연대기>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5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289~319쪽.

4) 유승환, 「황석영 문학의 언어와 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6.

무대의 브레히트 서사극 양식 각색을 대상으로, 이념의 선택이라는 주제가 무대 위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논한다.⁶⁾ 이들 연구는 텍스트의 의미가 단일한 매체 안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형식적 실험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각각 중요한 성과를 축적해 왔으나, 전쟁 이후의 조건 속에서 한 인간의 몸이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어떻게 노출되고 점차 ‘처리 가능한 상태’로 이행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주변 인물들을 생존과 가해, 돌봄과 처리 사이의 회색지대로 이끌며 ‘수치’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본고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여, 황석영의 『한씨연대기』를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세 가지 핵심 개념—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 벌거벗은 생명(bare life), 수치(shame)—을 분석 틀로 삼아 읽어내고자 한다.

아감벤의 이론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주로 나치즘과 서구 민주주의의 위기—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그 분석적 유효성은 특정 지역이나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핵심은 주권 권력이 ‘예외’를 통해 생명을 통치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에 있으며, 이 메커니즘은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전쟁은 법적 판단을 정지시키고, 그 공백 속에서 특정한 몸들을 보호의 바깥으로 밀어낸다. 한영덕의 몸이 북에서도 남에서도 완전히 수용되지 못한 채 경계 위에 놓이는 것, 그리고 그 몸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처분 가능한 존재로 재편되는 것은, 아감벤이 분석한 예외상태의 구조와 정확히 겹친다. 이런 의미에서 아감벤의 개념들은 『한씨연대기』를 국가 폭력과 생명 사이의 보편적 구조를 해명하는 이론적 언어로서 기능한다.

우선, 아감벤은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 2005)에서 주권 권력이 법질서를 정지시키면서도 동시에 그 법질서를 유지하는 역설적 구조를

5) 유혜중, 「황석영의 『한씨연대기』(1972)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민정기의 <한씨연대기>(1984)」, 『美術史學』 第48號,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24, 177~205쪽.

6) 김미영, 「이념의 선택과 상실의 기로 : 『한씨연대기』와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 『공연과 리뷰』 제44호, 현대미술사, 2004, 138~143쪽.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예외상태는 단순한 비상사태가 아니라, 법과 무법의 경계가 무화되는 ‘불확정지대(zone of indifference)’이자 현대 통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이다. Humphreys가 정리하듯, 아감벤은 예외상태를 “법 내부도 외부도 아닌 문턱”으로 규정하며, 이 공간에서 주권 권력은 생명 자체를 직접적인 통치 대상으로 삼는다.⁷⁾ 본고는 이 개념을 통해, 한국 전쟁과 분단의 조건 속에서 한영덕의 몸이 어떻게 보호의 바깥으로 밀려나는지를 추적한다. 그의 남하와 심문, 추방의 과정은 법의 이름으로 수행되지만 실은 법의 공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외상태의 작동으로 독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1998)에서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이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구별할 수 없는 불확정의 지대’(zone of indistinction)를 함께 점유한다고 주장한다.⁸⁾ 별거벗은 생명이란 그 고유한 전기적(biographical) 삶—즉 bios—을 박탈당한 채 오직 죽임당할 수 있는 생물학적 생명(zoe)으로만 남겨진 존재 상태를 가리킨다. Guenther가 지적하듯, 이 별거벗은 생명은 “죽여도 살인이 되지 않는, 처분 가능한 생명의 정치화된 형태”이며, 주권 권력은 바로 이 생명을 궁극적 대상으로 삼는다.⁹⁾ 본고는 이 개념을 통해, 한영덕이 의사로서의 사회적 자격과 이름을 단계적으로 박탈당하며 ‘처리 가능한 존재’로 이행하는 과정—즉 bios에서 박탈된 생명으로의 전락—을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아감벤은 『아우슈비츠의 남은 것들』(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1999)에서 수치를 주체화와 탈주체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존재론적 경험으로 파악한다. 이때 주체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감각하게 되며, 수치는

7) Stephen Humphreys, 'Legalizing Lawlessness: On Giorgio Agamben's State of Exception',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7(3), 2006, p.679.

8) Lisa Guenther, 'Resisting Agamben: The biopolitics of shame and humiliation',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38(1), 2012, p.2.

9) Lisa Guenther, 'Resisting Agamben: The biopolitics of shame and humiliation',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38(1), 2012, p.2.

바로 이러한 균열 속에서 드러난다. 다시 말해, 수치는 ‘주체화와 탈주체화의 동시적 운동’¹⁰⁾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프리모 레비가 제시한 ‘회색지대’—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흐려지는 구조—와 맞닿아 있다. 『한씨연대기』에서 한영덕을 둘러싼 인물들은 전쟁 이후의 조건 속에서 타인의 삶에 얽혀 들어가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본고는 이 지점에 주목하여, 인물들이 타인의 삶에 개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치의 구조를 추적함으로써, 소설이 드러내는 윤리적 긴장의 성격을 해명하고자 한다.

세 개념은 다음과 같은 분석적 연쇄를 이룬다. 전쟁과 분단이 만들어 낸 예외상태는 한영덕의 몸을 법적·사회적 보호에서 배제하고, 그를 벌거벗은 생명으로 환원시킨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목격하거나 공모한 주변 인물들에게는 말해줄 수 없는 수치가 남는다. 본고는 이 세 층위를 따라 『한씨연대기』를 읽음으로써, 기존 연구가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던 몸의 정치성과 윤리적 잔여의 문제를 이 소설이 날카롭게 제기하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2. 전쟁 예외상태와 몸(들)의 노출

『한씨연대기』의 서사는 전쟁이 이미 발발한 상황 속으로 독자를 직접 던져 넣는다. 소설은 전쟁의 기원이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해설하는 대신, 인간의 몸이 놓인 제도적 조건의 균열로부터 서사를 시작한다. 이러한 균열은 규범과 결단이라는 법의 두 요소가 분리되며 드러나는 예외상태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 슈미트가 지적하듯이, 결단은 규범으로부터 잔여 없이 도출될 수 없으며, 예외상태는 이러한 성격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다.¹¹⁾ 즉, 주권적 결단에 의해 규범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10) 조르조 아감벤 지음, 정문영 옮김,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문서고와 증인』, 새물결, 2012, 159쪽.

11)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1922);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

폐기되는 순간, 법은 더 이상 구체적 상황에 적용되지 않지만, 동시에 규범이 다시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실을 재구성한다. 다시 말해, 예외상태는 규범을 그 적용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그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며, 이 과정에서 법은 하나의 ‘불확정 시대’를 내부에 도입한다.¹²⁾ 바로 이 지점에서 몸은 보호 없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법에 포섭된다. 본 장에서는 한국전쟁이라는 예외상태에서 형성된 몸들의 분배, 계층화된 노출의 구조, 법의 공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처분, 그리고 그러한 노출의 보편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쟁이 만들어내는 예외상태는 특정한 몸들만을 선별하여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양 아래에서 작동하는 구조는 훨씬 포괄적이다. Kanwar는 아감벤의 예외상태 논의를 검토하면서, 현대 예외상태의 핵심적 특징이 “특정 집단을 나머지로부터 분리해내는 선택적 표적화(selective targeting)”¹³⁾에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선택적 표적화가 함의하는 바는 포함/배제의 이분법이 아니다. 소설의 총동원령 장면을 면밀히 읽으면, 명단에 포함된 몸과 배제된 몸 모두가 예외상태의 처분 아래 놓여 있되, 그 소멸의 경로만이 다르게 배분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총동원령이 내려진 날, 외과학의 정교수는 한영덕에게 “한 선생계선 명단에서 빠졌습데다”¹⁴⁾라고 고한다. 명단에서의 제외는 표면적으로는 전선 파견을 면한다는 뜻이지만, 한영덕에게 그것은 또 다른 방식의 처분으로 인식된다. “제외된 소수를 언제나 폐품 처리하듯 다뤄왔던 것이다”¹⁵⁾라는 그의 판단은, 배제가 곧 소멸의 다른 경로임을 드러낸다. 같은 장면에서 정교수의 발언—“차라리 뒤에 남을 가족들이나 대우를 받게 됐으면 다행이었다. 모두들 전선으루 발령이 났시요. 교수급들은 소좌나 중

d Bare Life, trans.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16-19.

12) Giorgio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p.18-19.

13) Vik Kanwar, Review of Giorgio Agamben, *State of Exception*, *Int'l J Const Law*, Vol. 14, No.3, 2006, p.573.

14)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24쪽.

15)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24쪽.

와 계급장을 달아주는 모낭입니다”¹⁶⁾—은 이를 역설적으로 보충한다. 계급장을 달고 전선으로 향하는 몸에게 ‘대우’란 보호가 아닌, 전투 속 죽음에 노출될 자격에 다름 아니다. 군복을 착용한 교수들의 몸은 체제의 언어 안에 포섭되지만, 그 포섭은 그들을 합법화된 소멸의 경로 위에 위치시킨다.

이 점은 한영덕과 마주치는 젊은 제자들의 묘사에서 구체적인 몸의 형상으로 제시된다.

“옆으로 지나가는 그들의 얼굴은 한반도 전역에 걸친 군대 보급의 무리에 따른 식량난과 겹친 격무와 쇠새없는 전사 노력동원으로 시달려 거무죽죽하게 그을려 있었다. 성급하게 군복을 착용한 품이 어떤 시련이라도 감당해낼 혈기가 남았음을 과시하고 있는 듯이 보였는데, 그런 종류의 혈기는 달리 본다면 시대의 광기라고나 할 거였다”¹⁷⁾

거무죽죽하게 그을린 얼굴, 소진된 몸 위에 걸친 군복—이 몸들은 체제의 동원 언어에 포섭되어 있지만, 그 포섭의 실질은 소진과 노출이다.

포섭과 동시에 배제도 발생한다 - 한영덕과 박교수, 서학준 교수는 명단에서 배제되었다. 의학부 학장은 그들에게 “성분 검토와 평상시의 정치투쟁 경력 등으로 평가해서 동무들은 의무군관으로 애국전선에 내보낼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소”¹⁸⁾라고 선언한다. ‘자격 없음’이라는 판정은 제도적 언어를 빌려 제시되지만, 그 판단의 실질은 법적 절차가 아니라 주권적 결단에 있다. 이어지는 “당은 동무들에게서 교수 자격을 박탈하고 노동전선으로 보내라고 했지마는”¹⁹⁾라는 문장은 이러한 전환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직함의 박탈은 몸을 다른 처분의 회로로 이행시키는 선언이다. 만약 예외상태에서 주권 권력의 근본적 활동은 “별거벗은 생명의 생산”이며²⁰⁾, 총동원령은 명단의 안팎을 막론하고 모든 몸

16)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24쪽.

17)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27쪽.

18)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31쪽.

19)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32쪽.

을 그 생산의 회로 안으로 끌어들이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어서 작가의 시선을 따라 전쟁이라는 예외상태 속에서 병원이라는 공간에 구축되는 계층화된 노출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약품도 제대로 없고 의료기구조차 거의 없다시피 한 병원에서 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됐었는데, 중태인 환자는 그냥 방치해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치료라는 건 대개 형식적인 데 지나지 않았다”²¹⁾. 이 병원의 공간 구조는 예외상태의 계층화된 논리를 물리적으로 가시화한다. “당에서 제일 깨끗한 병동 하나를 분리시켜 당원과 그 가족을 위한 특별동을 마련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²²⁾. 특별동과 보통병동의 분리는 보호 받는 몸과 방치되는 몸 사이의 경계를 공간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결국, 예외상태의 선택적 표적화는 “어떤 몸이 권리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라기보다, 특정 몸들을 안전한 공간으로부터 분리하여 비보호의 영역—곤 무법의 공간—으로 이행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²³⁾

가장 첨예하게 노출된 몸들은 티푸스 환자들이다. “입술이 허영게 말라붙고 복장이 부어오른 환자들이 옆으로 지나쳐가는 의료원들의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고 살려달라 할 때에는, 의사 쪽에서 오히려 죽는 소리로 실정을 설명해야 되었던 것이다. 자기가 내지른 대소변을 질펀히 깔고 누워 눈만 멍청히들 뜨고 있는 수백 명의 감염환자들은 마치 악령들처럼 보였다”²⁴⁾. 대소변 위에 누운 채 눈만 들뜨고 있는 몸—이것이 예외상태가 생산해내는 몸의 극단적 형태다. 이들은 치료의 대상에서 배제된 채 방치되며, 살아 있으나 이미 사회적 관계로부터 이탈한 존재로 남는다. 방공호 안의 수술 장면은 이러한 구조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열서너 살 소녀의 몸은 ‘벌거벗겨진’ 채 나무 의자 위에 눕혀지고, 마취제 없이

20) Stephen Humphreys, Legalizing Lawlessness: On Giorgio Agamben's State of Exception,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7(3), 2006, p. 687.

21) 황석영, 『한씨연대기』, (문학과동네, 2020, 32쪽.

22) 황석영, 『한씨연대기』, (문학과동네, 2020, 32~33쪽.

23) Vik Kanwar, Review of Giorgio Agamben, State of Exception, Int'l J Const Law, Vol. 14, No.3, 2006, pp. 573-574.

24) 황석영, 『한씨연대기』, (문학과동네, 2020, 34쪽.

절개된다. 한영덕이 봉합을 이어가는 동안, 원장은 “까짓, 애들은 또 낳는 거요”²⁵⁾라고 말한다. 이 발언은 예외상태에서 주권자에게 어린 몸의 생명을 대체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 동시에, 그 몸에 가해지는 개입을 보호의 논리 바깥에 위치시키는 판단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분배는 심문과 총살의 장면에서 처분의 구조로 구체화된다. 서학준의 잠적 이후 한영덕은 지하실에 감금되었다가 매일 아침 흰 벽의 방으로 끌려가 심문을 받는다. 축축한 냉기의 지하실과 밝고 정돈된 방의 대비는 몸이 반복적으로 이동되고 배치되는 예외상태의 리듬을 드러낸다. 동일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가운데 “재판은 없었고 심문은 길었다”²⁶⁾. 법적 절차가 부재한 자리에서 심문은 재판을 대체한다. 이어 한영덕은 총살의 국면으로 이행한다. “삼십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한 줄로 묶이어”²⁷⁾ 이동하고 삼열 횡대로 정렬되는 과정에서 몸은 처형 이전에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몸의 하반신이 안개에 가려진 채 상반신만 떠 있는 형상은, 이 몸들이 이미 지면으로부터, 즉 삶의 물질적 기반으로부터 분리되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제시한다. 처형조장의 묘사 – “상반신이 벌거숭이인 조장이 권총 탄창을 철컥 끼워 넣고 나서 단조롭게 구령을 내질렀다”²⁸⁾ – 는 죽이는 자 역시 예외상태의 논리 안에서 인간적 의미의 층위를 박탈당한 몸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벌거벗은 상반신과 기계적인 구령은, 이 처형이 어떤 판단이나 감정도 없이 수행되는 순수한 주권적 처분임을 가시화한다.

총살 이후의 생환은 이 처분의 불완전한 실행이 낳은 잉여적 상태다. “처형된 날 오후쯤에 한씨는 몸이 무겁고 숨이 답답해서 고개를 쳐들어 보니 하늘이 보이더라는 거였다. 썩는 냄새가 지독했고, 그의 얼굴에도 파리 떼가 달라붙어 있었다”²⁹⁾. 시체들 틈에서 파리 떼가 달라붙은 채로

25) 황석영, 『한씨연대기』, (문학과동네, 2020, 43쪽.

26) 황석영, 『한씨연대기』, (문학과동네, 2020, 45쪽.

27) 황석영, 『한씨연대기』, (문학과동네, 2020, 45쪽.

28) 황석영, 『한씨연대기』, (문학과동네, 2020, 46쪽.

29) 황석영, 『한씨연대기』, (문학과동네, 2020, 49쪽.

살아있는 이 몸은, 주권 권력이 처리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몸과 생물학적으로 지속되는 몸 사이의 간극에 존재한다. 법적으로 그의 생명은 이미 처리되었고, 이후의 생존은 그 처리가 실패함으로써 남겨진 잉여다.

이 배제와 차별, 심문과 총살 모두 겪어온 한영덕의 몸은 이제 다른 몸들과 함께 대동강을 건넌다. 대동강변의 피난 장면은 예외상태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전쟁 공간 안의 모든 몸에 걸쳐 있음을 가장 광범위한 방식으로 가시화하는 장면이다. “교각과 아치만이 남은 철교 위에 피난민들이 하얗게 기어올랐다. 새벽부터 계속된 피난민들의 도강은 오후가 되어서도 끊이질 않았는데 실족해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³⁰⁾. 철교의 아치를 기어오르는 이 몸들은 어떤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강이라는 경계 위에서 목숨을 건다. 떨어져 죽는 몸들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고, 책임지는 자도 없다. 이렇듯, 예외상태는 결국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치적 주체의 공통된 불안정성(common insecurity)”을 드러내는 조건이다.³¹⁾

이 군중 속에서 한영덕의 몸이 처하는 상황은 그 보편적 노출의 개별적 형태다. 그는 “감히 아치 위로 기어오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모친과 처자를 데리고 강안에 서서 구경만 할 뿐”³²⁾이다. 총살에서 살아 돌아온 그의 몸은 아직 어떤 새로운 제도적 귀속도 얻지 못했다. 북에서 그의 몸은 이미 처형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강 건너 남쪽에는 그의 몸을 받아줄 아무런 보장도 없다. 이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상태를 소설은 강안에서의 정치라는 몸의 자세로 형상화한다.

이윽고 그가 택하는 것은 단신 도강이다. “앞에 가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 뭉쳐 머리에 이고 별거숭이 몸으로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강물이 거의 그들의 목에까지 차올랐다”³³⁾. 옷을 벗어 머리에 이고 영하의 강물 속을 건너는 이 몸들의 모습은, 예외상태 아래의 노출이 최종적으로 어

30)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51쪽.

31) Vik Kanwar, Review of Giorgio Agamben, State of Exception, Int'l J Const Law, Vol. 14, No.3, 2006, p.575.

32)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51쪽.

33)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55쪽.

떤 형태를 취하는지를 물질적으로 제시한다. 사회적 표지를 모두 벗어낸 채 생물학적 생존만으로 경계를 횡단하는 이 몸들은, 아감벤이 분석하는 벌거벗은 생명의 형상과 겹친다. 한영덕은 강을 건넌 이후 가족들과의 결별을 뒤에 두고 홀로 걷기 시작한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모래와 눈 섞인 바람이 불어왔다. 그의 등 뒤에서 강물 위를 서로 부딪치며 흘러내려가는 살얼음들의 잘강잘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³⁴⁾. 돌아보지 않는 등, 잘강잘강 부딪치는 살얼음 소리—소설은 이 이동에 어떤 희망이나 해방의 서사도 부여하지 않는다. 이 단신 남하는 성공적인 탈출이기 어렵다. 그것은 예외상태가 지속되는 조건 안에서의 위치 이동이다. 북에서 이미 사회적 자격을 박탈당한 한영덕의 몸은 남에 이르러 또 다른 예외의 질서 속으로 편입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몸은 예외상태 속에서 배치되고 노출되며 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음 장이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서 몸이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상실하고 벌거벗은 생명으로 이행하는 지점이다.

3. 벌거벗은 생명과 몸의 비인간화

본 장은 『한씨연대기』에서 예외상태가 어떻게 특정한 몸을 법적·정치적 질서로부터 배제하면서도 동시에 그 내부에 포섭하는가를 분석한다. 이 과정은 문서, 공간, 몸, 법적 형식이 결합된 일련의 장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구성된다. 소설은 한영덕이 사회적 자격을 박탈당하는 과정을 통해, 주권 권력이 특정한 몸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축소시키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이에 본 장은 ① 문서에 의한 포획과 명명, ② 몸의 노출과 비인간화, ③ 예외 공간의 연쇄적 구성, ④ 법의 내부와 외부로 가로지르는 역설적 위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소설 중반부에 삽입된 두 개의 문서—군사정보대(MID)의 정보 보고서

34)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57쪽.

와 박사·김가가 작성한 익명의 투서—는 한영덕이 법적·정치적 질서에서 배제되는 바로 그 메커니즘을 가시화한다. 정보 보고서는 한영덕을 ‘敵性容疑者’이라는 기호로 지칭하며, 그의 신체적 실존을 사법·군사적 절차의 객체로 환원한다. “상기 의용의자를 체포하였음”³⁵⁾이라는 문장은 주체를 지워버린 채 포획의 사실만을 기록한다. 이름 대신 성별·나이·직업·본적으로 분절된 인적 사항의 나열은, 아감벤이 강조한 바 있는 생체정치적 등록의 전형이다. 생명은 그것이 관리되고 분류될 수 있는 범주들—인구, 건강, 위험도—의 교차점으로서만 파악된다.³⁶⁾ 투서의 언어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대한민국의 온건한 사상을 지닌 국민으로서”로 시작하는 이 문서는, 스스로를 애국적 시민의 발화로 정당화하면서 한영덕을 “1948년 김일성대학 의학부 산부인과학 교수직에 취임”하고 “군사기밀 수집과 간첩조직망의 구성, 불평분자 포섭의 임무를 띠고 피난민으로 가장 남파되었음이 분명”³⁷⁾한 자로 규정한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의 역설적 조건을 이중적 배제로 설명한다. 그는 신성한 법(*fas*)으로부터도, 인간의 법(*ius*)으로부터도 동시에 배제되며, 이 이중 배제 속에서 그의 몸은 주권 권력에 직접 노출된다.³⁸⁾ 『한씨연대기』에서 정보대 취조 장면은 이 이론적 명제를 몸의 언어로 번역한다. 취조실에서 한영덕의 몸은 철저하게 비인간화의 절차를 밟는다.

“달달거리며 쉬불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신문병으로 보이는 사복 청년이 야전용 전화기의 발전 페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전전의 끝이 의자 뒤로 묶여진 남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에 매어져 있었는데, 점차 회전 속도가 빨라져 전압이 올라갈 수록 그의 입에서는 지쳐빠진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고박사는 조장 앞으로 인도되었고, 심분받는 사내의 오른쪽 책상머리

35)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58쪽.

36) Giorgio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Daniel Heller-Roazen 옮김,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6.

37)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95쪽.

38) Giorgio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Daniel Heller-Roazen 옮김,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82.

에 얹혀졌다. 그제서야 고씨는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실신 직전에 있는 남자가 한영덕 후배임을 알았다. 한씨 옆에 붙어있던 자가 머리카락을 뒤도 잡아당겨 얼굴을 치켜올렸다. 한씨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한동안 안면 근육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더니 눈을 떴다. 심문조의 한 사람이 조장에게 말했다.

“좀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괜찮아. 죽지 않으면 된다구. 새끼가 보통 악질이 아니란 말야. 야, 눈떠, 나를 똑바루 봐. 이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냐?”³⁹⁾

한영덕은 낮 나간 시선으로 고박사를 바라본다. “수 주간에 걸친 극심한 수면 부족으로 붉게 짓물러 눈곱이 끼어 있었고, 온 얼굴엔 멍든 자국 투성이”⁴⁰⁾인 몸은, 법적 절차의 주체가 아닌, 취조의 소재로 존재한다. 야전 전화기의 발전 폐달이 돌아가고 전선이 엄지손가락에 연결될 때, 몸은 정보를 끌어내기 위한 물리적 매개로 전환된다. 이때 몸이 겪는 사실 이전의 사실—아직 증명되지 않은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사전 공정—으로서 가해진다는 점에서 특히 징후적이다.

“그들은 서로 낯발 내기를 하는 도박꾼들처럼 대결했다. 그들은 아직도 한씨에 대한 확실한 피의 사실을 잡아낼 만한 정보를 갖지 못했고, 안다면 투서에 밝힌 사연과 그가 북에서 교수 노릇을 했는 것, 단신 월남한 뒤에 살아온 생활 상태 같은 사실들뿐이었다. 그들은 일정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예측할 수 없이 조를 바꾸어 심문했다. 한씨는 새벽에 어스름한 잠에서 깨 어날 무렵 끌려나갈 때도 있었고, 하루종일 혼자 놓아두었다가 초저녁에 느닷없이 달려들어왔다. 조서를 끝막음하던 사흘동안 한영덕씨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광도 높은 백열전등을 한씨의 머리 위 정면과 측면에 켜놓고 세 사람의 신문자가 저쪽 어둠 속에서 번갈아 재빨리 질문했다. 대답이 늦을 적마다 드러나놓은 정강이 위에 곤봉의 타격이 가해졌다. 한씨는 극심한 피로 때문에 눈물을 줄줄 흘렸고 나중에는 침까지 흘렸다. 영원히 비정한 백주가

39)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117쪽.

40)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117쪽.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가 자동적으로 고개를 떨구고 줄게 되면 콧구멍 속으로 고춧가루 섞인 물을 들이부었다. 한씨는 그때에 교수도 피난민도 아니었고 미친 시대 위에 놓인 한갓 고깃덩이일 따름이었다.”⁴¹⁾

조장이 리볼버 권총을 관자놀이에 갖다 대며 “넌 간첩이야. 간첩. 네 따위 하나쯤 죽여봤자 전시에 누가 알 상 싶으냐”⁴²⁾라고 외치는 장면은, 아감벤이 호모 사케르에 관해 “그를 죽이는 자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다”⁴³⁾고 정식화한 명제의 서사적 현현이다. 살해 가능성을 공공연히 발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실제로 협박의 언어로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은, 한영덕이 이미 법적 보호의 울타리 바깥에 배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전시라는 예외 상태가 이 발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황석영이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 방식이다. ‘한씨는 그때에 교수도 의사도 피난민도 아니었고 미친 시대 위에 놓인 한갓 고깃덩이일 따름이었다’. 이 문장은 소설 전체에서 별거벗은 생명의 개념을 가장 직접적으로 언어화하는 지점이다. 교수, 의사, 피난민이라는 세 개의 사회적 정체성—bios의 형식들—이 차례로 박탈된 자리에 남는 것은 ‘고깃덩이’, 즉 사회적·정치적 속성이 완전히 탈각된 순수한 신체적 질료다. 아감벤이 나치 수용소의 Muselmann—극한의 기아와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을 상실한 수용소 수감자—을 별거벗은 생명의 극단적 형상으로 분석한 것처럼,⁴⁴⁾ 한영덕의 취조당하는 몸은 한국 전쟁의 예외 상태가 산출한 그 형상의 문학적 등가물이다.

아감벤은 수용소(camp)를 예외 상태가 규범으로 전환된 공간—“예외가 규칙이 된 장소”—으로 규정하며, 이를 근대 생체정치의 가장 순수한 공간적 현현으로 분석한다⁴⁵⁾. 『한씨연대기』에서 이 예외 공간은 연쇄적

41)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120~121쪽.

42)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120쪽.

43) Giorgio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Daniel Heller-Roazen 옮김,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72.

44) Agamben,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Zone Books, 1999, pp.41-42.

으로 배치된다.

서사의 시작에 위치하는 포로수용소(WP CAMP)는 한영덕이 처음으로 군사·사법 권력의 시선에 포획되는 장소다.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OFF LIMIT AREA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는 장면은⁴⁶⁾, 예외 공간의 경계가 몸의 이동을 범죄화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 경계는 지리적인 동시에 주권적이다—특정 몸이 어떤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의 근거가 된다. 정보대 건물은 이 예외 공간의 두 번째 층위를 형성한다. 황석영은 “구일본 헌병대가 쓰다 남겨놓은 낡고 어둡침침한 목조 가옥”⁴⁷⁾이라는 묘사를 통해 이 공간이 식민지 폭력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음을 암시한다. 바깥에서 보면 “꼭 병원이나 소년단의 캠프처럼 산뜻하고 양증맞아” 보이지만, 안쪽에는 “굶다란 쇠철망이 쳐져 있고 그 안이 그늘져 시꺼멓게 보이는”⁴⁸⁾ 대비 구조는, 예외 공간이 정상성의 외양을 통해 자신을 위장하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이 공간에서 법적 절차는 명목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로는 자백 강제와 신체 고문이 ‘취조’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된다.

한영숙이 정보대를 방문했을 때 이웃 건물(G2)에서 들려오는 “비인간적인 음조로 갈라지며 흐느끼는” 비명과 “추위에 떠는 듯한 남자의 신음”은⁴⁹⁾, 이 공간 내부에서 수행되는 폭력을 간접적으로 가시화한다. 특히 ‘비인간적인’이라는 서술자의 형용은 몸이 인간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과정—별거벗은 생명으로의 환원—을 언어 차원에서 등록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아감벤 사유의 핵심적 긴장 중 하나는 호모 사케르가 법의 내부에 있는 동시에 법의 외부에 있다는 역설이다. 그는 법 바깥에 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법의 이름으로 포획되고 처벌된다⁵⁰⁾.

45) Giorgio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Daniel Heller-Roazen 옮김,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p.168-169.

46)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58-59쪽.

47)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104쪽.

48)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104쪽.

49)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110쪽.

『한씨연대기』에서 한영덕의 법적 지위는 바로 이 역설적 위치를 정확히 점유한다.

변호사의 발언은 이 구조를 법적 언어로 해명한다. “사건의 성격 자체가, 간단히 증거 불충분으로 단정지어 구속을 해제해 버리기엔 국가 보안상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경우, 공소를 보류시킨 다음에도 검사는 피의자를 관할 경찰서에 요시찰 인물로서 계속 감시관찰을 위임할 수가 있고, 증거 조사를 위해 수시로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⁵¹⁾ 여기서 법의 이중성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법적 논리는 무죄방면으로 이어지지 않고, ‘국가 보안상’이라는 예외적 논리에 의해 굴절되어 또 다른 형태의 구금으로 전환된다. 법은 한영덕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지 않고, 그를 지속적인 감시와 포획의 상태에 묶어두기 위해 작동한다.

(변호사) “정보대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현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과오라도 범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안상의 문제에서 그들은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했었다는 선까지만 밝혀주면 그뿐일 테죠”

(한영숙) “기림 억울하구 원통하게 당한 사람은 어카구요. 생사람을 춘하 이식으루 떼려잡는 거이 민주국가야요?”

(변호사) “이번 전쟁에서 수십만의 인명이 실상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절반으로 식감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양쪽의 똑같은 명분입니다. 계속 죽지 않고 이런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고충이 따르게 마련 아닙니까? 여하튼 저는 이 사건이 검찰에 넘어올 만한 가치도 없는 사건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해드려야 될 일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워낙 이런 사건이 많으니까 생겨난 오류겠지만, 재판의 지연입니다. 검사는 원래 확실한 피의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서는 피의자를 열흘 이상 구금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연기 신청을 하여도 이십 일밖에 구금 조치할 수 없습

50) Giorgio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Daniel Heller-Roazen 옮김,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28.

51)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126쪽.

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일 뿐이고, 국가 보안상의 사건에 대하여는 수도중에 확실하게 언제까지 구금시켜야 한다는 제약을 사실상 받지 않고 있는 혼란한 실정입니다. 혼란이 얼마만큼 심한가는 이런 사건이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재판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고, 공소 보류사 관찰 수칙에 해당되어 몇 년간 사실상의 신분 상실자가 될 경우도 발생할지 모릅니다.”⁵²⁾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한영덕의 위치는 내부와 외부 사이의 경계에 머문다. 그는 법 밖으로 완전히 배제되지도 않지만, 법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지도 않는다. 바로 이 경계에서 몸은 의미를 상실한 채 노출되고, 살아 있는 생명은 어떠한 정치적·법적 형식으로도 매개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연도 결과인 “환자의 위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 중 치상시킨 죄에 해당되는 일 년의 징역과 삼 년의 자격 정지”⁵³⁾는 더욱 징후적이다. 작가가 명시하듯 “판결이 표면상으로는 의료법을 적용했으나 사실은 정치적인 인상이 짙었다”⁵⁴⁾는 이 연도는, 법적 형식과 정치적 내용 사이의 분열을 보여준다. 의료법이라는 법적 형식은 사용되지만, 그 실질적 목적은 한영덕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아감벤이 지적한 바, 예외 상태에서 법적 형식과 법적 효력은 분리될 수 있으며⁵⁵⁾, 한영덕의 재판은 그 분리의 서사적 예증이다.

작품 말미에서 혜자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죽음이 아닌—그이가 내포했던—시대를 새롭게 실감”⁵⁶⁾한다는 결말부의 서술은, 별거벗은 생명으로서 한영덕의 삶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다음 세대의 의식 속에서 재구성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황석영은 한영덕이라는 개인을 통해 한국전쟁이라는 예외 상태가 어떻게 특정한 몸들을 호모 사케르의

52)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127~128쪽.

53)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135쪽.

54)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135쪽.

55) Giorgio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Daniel Heller-Roazen 옮김,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38.

56)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138쪽.

위치에 구조적으로 배치했는가를, 그리고 그 배치가 어떻게 세대를 가로질러 지속되는 역사적 상처를 생산했는가를 묻고 있다.

4. 생존의 몸과 수치의 균열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씨연대기』에서 전쟁의 예외상태는 한영덕의 몸을 철저히 노출시키고 비인간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황석영의 서사는 수동적 수난의 형상만을 그리지 않는다. 소설에는 동일한 예외상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권력 구조에 편입되거나 타인을 희생시키는 인물들이 반복하여 등장한다. 이들의 존재는 아감벤이 프리모 레비(Primo Levi)를 따라 명명한 ‘회색지대(gray zone)’의 문제를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이라는 구체적 역사 속에서 첨예하게 제기한다.

아감벤은 레비의 논의를 이어받아, 집중수용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연결하는 긴 사슬이 느슨해지는” 지대가 형성됨을 지적한다. 이 회색지대는 예외상태의 폭력이 구조적으로 생산하는 공간이다.⁵⁷⁾ 그러나 동시에 아감벤은 이 지대를 단순한 면죄의 논리로 읽는 것도 경계한다. 회색지대는 책임과 무책임이 분리될 수 없게 뒤얹히는 공간이며, 바로 그 뒤얹힘 속에서 수치라는 윤리적 감각이 균열처럼 열린다. 아감벤에 따르면 수치는 “주체화와 탈주체화의 절대적 공존”⁵⁸⁾이다. 이는 곧 수치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점유하는 주체인 동시에 그 점유 행위에 의해 해체되는 주체라는 뜻이다. 아감벤은 레비나스가 1935년에 수행한 수치 분석을 이어받아, 수치가 우리의 전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수치 속에서 나는 자신을 숨길 수 없으며, 그 숨길 수 없음 자체가 나를 구성한다.⁵⁹⁾

57) Giorgio Agamben,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trans. Daniel Heller-Roazen, New York: Zone Books, 1999, p.21.

58) Agamben,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Zone Books, 1999, p.107.

59) Agamben,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Zone Books, 1999,

또한 권터(Guenther)는 아감벤의 수치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수치를 타자와의 관계가 끝내 소거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윤리적 감각으로 재정의 한다. 권터에 따르면 “수치를 느끼는 능력은 반드시 저항의 장소이며, 즉각적인 불의 속에서도 정의를 위한 감각이다. 그것이 타자와의 뿌리를 가진 책임을 확인하기 때문이다”⁶⁰⁾. 이 관점은 본 장 전체의 독해를 안내하는 준거들이 된다. 수치가 행동을 중단시키지 않더라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예외상태의 논리가 인간의 관계성을 완전히 소거하는 데 실패했음을 증거한다.

바로 이 개념적 틀 위에서, 본 장은 소설에 등장하는 네 인물군—의학부 학장, 서학준, 김가·박가, 그리고 노인 한씨의 임종을 둘러싼 적산집 사람들—을 순서대로 분석하면서, 이들 각각이 예외상태 속에서 생존을 위해 선택한 방식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수치의 균열을 추적한다.

예외상태가 어떻게 새로운 권력 주체를 생산하는지는 의학부 학장의 장면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의학부 학장이란 자는 소련군 의무장교로 점령군을 따라왔다가 군복을 벗는 길로 당원이 된 자였다. 시대가 시대니만큼, 소련군 출신이지만 하면 사상이나 계급이나 성분에 대한 고려조차 필요 없이 행정의 요직을 차지하던 때였다.”⁶¹⁾

이 인물의 권력은 그의 능력이나 정치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시대가 시대니만큼’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권력의 근거를 예외상태의 구조 속에 위치시킨다. 아감벤의 언어로 읽으면, 예외상태는 정상적 법질서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처럼 새로운 권력 주체들을 창출한다.⁶²⁾ 학

p.105.

60) Lisa Guenther, *Resisting Agamben: The Biopolitics of Shame and Humiliation*,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vol.38, no.1, 2012, p.6.

61)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30쪽.

62) Agamben,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Zone Books, 1999, p.19.

장의 몸은 그 창출의 결과다.

이 학장이 한영덕과 서학준에게 건네는 말은 회색지대의 논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성분 검토와 평상시의 정치투쟁 경력 등으로 평가해서 동무들은 의무군관으로 애국전선에 내보낼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소. 당은 동무들에게서 교수 자격을 박탈하고 노동전선으로 보내라 했지마는 오랫동안 제국주의적 교육을 받아온 동무들의 정신을 참작해서 내가 중앙당으로 탄원했소.”⁶³⁾

학장은 두 교수를 처벌하는 결정을 내린 자이면서 동시에 그 처벌을 완화시켜주는 은인을 자처한다. 그는 상위 권력의 명령을 집행하는 하위 집행자이면서도, 그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재량을 발휘하는 권력자다. 이 이중적 위치가 바로 아감벤이 별동대(Sonderkommando) 분석에서 지적한 논리다. 아감벤은 “별동대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것은 나치즘의 가장 사악한 범죄”⁶⁴⁾라고 말한다. 그것이 사악한 이유는 피해자를 자신의 고통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리기 때문이다. 학장의 ‘탄원’은 그와 동일한 구조 위에서 작동한다. 그는 두 교수를 특별병동의 담당의로 배치함으로써 그들을 권력 구조의 하위 협력자로 만든다.

그러나 아감벤은 이러한 회색지대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유보할 것을 요청한다. “만약 우리가 어느 인간이든 일단 그 선을 넘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경계를 설정하고, 거의 모든 인간 또는 대부분의 인간이 그 선을 넘었다면, 그것은 인간의 비인간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 자체의 불충분함과 추상성을 증명하는 것”⁶⁵⁾이다. 학장을 기회주의자로

63)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과지성, 2020, 31쪽.

64) Agamben,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Zone Books, 1999, p.21.

65) Agamben,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Zone Books, 1999, p.21.

낙인찍는 독해는 예외상태의 구조적 폭력을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한다.

학장이 예외상태가 외부로부터 생산한 권력의 몸을 보여준다면, 서학준은 예외상태가 내부로부터 인간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한영덕의 동창이자 동료이며, 소설은 두 사람이 처음 마주치는 장면을 이렇게 서술한다.

“그들은 평양고보에서부터 평의전을 거쳐 교토대학까지 동창이라 제각기 상대편의 마음을 환히 털어놓을 수가 있었다. 어떤 운명이든 그들은 함께 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⁶⁶⁾

‘함께 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는 이 문장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약속인 동시에 그 약속이 반드시 깨질 것임을 예고하는 복선이다. 국군이 개성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서학준이 탈출을 결심하는 장면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갈라진다.

“에이 모르겠다. 네 처는 나를 원망할 거야. 난 가가서. 뒷길루 해서 기차묘 송림에 숨었다가 어두워지면 집에 들르가서. 묻거든 말이다 다른 말 할 거 없이 못봤다구만 글라.”⁶⁷⁾

서학준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한영덕에게 타인을 위한 거짓을 떠맡긴다. 이것은 생존이 이미 타자를 희생시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감벤이 집중수용소에서 관찰한 회색지대의 논리가 여기서 두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 재현된다. 억압자가 피억압자를 자신의 절멸 과정에 참여시키는 구조가, 여기서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자신의 탈출을 은폐해달라는 부탁의 형태로 나타난다.

서학준이 덧붙이는 “속없는 사람 같으니”⁶⁸⁾라는 말은 그 자체로 하나

66)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28쪽.

67)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37쪽.

의 가치 체계를 드러낸다. 한영덕이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그에게 ‘속없음’—어리석음이자 세상을 모르는 고집—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석영의 서사는 이 판단을 교정한다. 서학준이 은신해 있는 동안, 한영덕은 그의 행방을 둘러싼 심문과 고문을 감내하면서도 끝내 침묵을 유지하다 처형을 당한다.

그 후 서울에서 재회한 두 사람의 간극은 더욱 극명하게 벌어진다. 서학준은 수도육군병원 영관급 군의관이 되고, 한영덕은 무면허 의사 박가김가의 병원에서 유령 원장 노릇을 하며 근근이 살아간다. 서학준이 한영덕에게 건네는 충고는 다음과 같다.

“애써 무고죄루 소송을 걸문 멀하갔습네까? 성립되디두 앓을 텐데. 기러구 한군이 무사히 나오기만 하문 미친개에 물린 썸치구 몸이나 회복하길 바라자우요. 이뎀부터 주의해가멘 살아가문 되잖갔소?”⁶⁹⁾

‘미친개에 물린 썸 치고’—이 표현은 예외상태의 폭력을 자연 현상처럼 비유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 자체를 소거한다. 아감벤이 논하는 수치의 구조와 대조해보면, 서학준의 이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명해진다. 아감벤에 따르면 수치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묶여 있다는 감각에서 비롯된다. 수치 속에서 주체는 자신의 행위로부터 소외되면서도 그 행위의 목격자가 된다.⁷⁰⁾ 서학준에게는 이 수치의 감각 자체가 없다. 그는 자신의 생존이 어떤 관계의 단절 위에 세워졌는지를 의식하지 않거나, 의식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이 아감벤의 언어로 말하자면, 탈주체화를 동반하지 않은 순수한 주체화다—그러나 아감벤의 논리에서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탈주체화가 억압된 자리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남는다—그것은 바로 타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소거되지 않았다

68)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37쪽.

69)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128쪽.

70) Agamben,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Zone Books, 1999, p.105.

는 흔적이다. 서학준의 끊임없는 충고와 자기 정당화의 언어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흔적을 드러낸다. 만약 관계가 완전히 소거되었다면, 그는 한영덕의 처지에 무관심했을 것이다. 그 무관심하지 못함—그러나 수치로까지 발화되지 못한 감각—이 서학준이 점유하는 회색지대의 좌표다.

김가와 박가는 이 소설의 회색지대 인물들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타자를 희생시키는 자들이다. 소설은 이들을 이렇게 소개한다.

“박가는 평양에 있던 선대 이치과네서 십년 동안이나 기공사로 일해왔던 사람이었다. 수술이라고는 개구리의 배도 제대로 찢보지 못했던 박가가 서울 수복 직후의 여수선한 시국에 외과병원을 개업하고 있었다.”⁷¹⁾

전쟁과 수복이라는 예외상태가 정상적인 법질서와 자격 검증 체계를 마비시킨 틈새에서, 박가와 김가는 자신들의 생존 공간을 확보한다. 그들이 수복 직후 “아직 주인이 돌아오지 않은 빈 병원마다 찾아다니면서 쓸 만한 의료기재들을 모았다”⁷²⁾는 서술은 이들의 생존 전략이 타인의 부재와 상실 위에 구축되어 있음을 명시한다.

한영덕을 필요로 하는 이유 역시 “한씨의 의술에 호감을 가졌던 건 그 실력 때문이 아니라 전공이 산부인과였던 때문이었다.”⁷³⁾ 전시에 불법 낙태 수술이 수익의 원천이 되는 상황에서, 한영덕의 자격증과 전공은 이들에게 일종의 방패막이다. 한영덕의 몸은 이들에게 도구적 존재로 기능하며, 이것이 바로 아감벤이 말하는 ‘처분 가능한 생명’의 논리가 역전된 형태다. 무젤만이 수용소의 권력에 의해 처분 가능한 존재로 전락한다면, 여기서는 살아남으려는 자들이 다른 살아남으려는 자를 처분 가능한 것으로 다룬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한영덕을 배신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논리적 귀결이다. 김가는 윤미경에게 한영덕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결국

71)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67~68쪽.

72)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68쪽.

73)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70쪽.

두 사람은 투서를 작성하여 한영덕을 정보대에 고발한다.

그들이 투서를 작성한 동기는 약품 압수 사건으로 인한 개인적 원함과 경제적 이해관계다. 아감벤의 표현을 빌리면, 이 투서의 작성 순간은 회색지대가 완성되는 순간이다. 레비가 *Befehlnotstand*(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강제 상태)를 논하며 지적했듯, 이 시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구조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구조를 재생산하는 주체가 된다.⁷⁴⁾ 김가와 박가는 전쟁이 만들어낸 불법 의료 시장의 피해자이면서, 그 시장 안에서 한영덕을 더 큰 폭력에 넘기는 가해자가 된다.

그러나 황석영의 서사가 예리한 것은, 바로 이 투서를 작성하는 순간에도 김가의 입에서 수치의 균열이 미세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박가에게 한영덕을 고발하자고 부추기는 김가의 말 속에는 끊임없는 자기 정당화의 필요성이 보인다. 거듭되는 ‘수상하다’는 표현, ‘틀림없이’라는 단언들은, 오히려 자신의 행위에 대한 확신 부족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이것이 아감벤이 말하는 수치의 흔적, 즉 “주체화—투서를 써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행위와 탈주체화—그 행위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점유할 수 없는 감각—의 절대적 공존”⁷⁵⁾의 최소한의 흔적이다.

소설의 가장 섬세하고 중요한 회색지대는 전쟁의 거시적 폭력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 공간의 적산가옥에서 펼쳐진다. 노인 한영덕의 임종을 둘러싼 적산집 사람들의 행위와 언어는, 수치가 어떻게 균열처럼 열리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

노인 한영덕이 쓰러진 직후 적산집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노골적이다. 민씨댁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그 영감은 혼이 없는 허수아비라구요. 얘기가 뻔한 거죠. 평소에 변씨 여편네가 시중들어주며 살아왔으니 죽은 담에야 알 게 뭐람. 저희네루

74) Agamben,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Zone Books, 1999, p.97.

75) Agamben,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Zone Books, 1999, p.107.

양도해줬다구 우기면 꿈짜없지. 어쩌면 오래전에 별써 방을 넘겨주기루 타협을 끝냈는지도 모르쥬. 방은 남는 거구 저 노인넨 얼마 못 산단 말예요.”⁷⁶⁾

‘혼이 없는 허수아비’—이 표현은 아감벤이 무젤만을 묘사할 때 쓰는 어휘와 정확히 겹친다. 아감벤에 따르면 무젤만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서 어느 쪽으로도 온전히 귀속되지 않는 존재다⁷⁷⁾. 이 비귀속성이 그를 ‘완전한 증인’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아무도 바라보려 하지 않는 존재로 만든다. 죽어가는 노인 한씨에게도 정확히 같은 논리가 작동한다. ‘방은 남는 거구 저 노인넨 얼마 못 산단 말예요’라는 문장 속에서, 노인의 몸은 방이라는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장애물로만 남는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민씨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다.

“죽는 사람을 놓구 좀 야박한 거 같구만.”⁷⁸⁾

이 문장이 본 절이 추적하는 수치의 구조를 가장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민씨는 방을 차지할 계획을 세우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그 행위의 ‘야박함’을 느끼는 주체다. 이 이중성이 아감벤이 말하는 수치의 구조다. 민씨는 방을 빼앗는 행위를 온전히 점유하는 주체(주체화)이면서도 ‘야박한 거 같구만’이라는 말로 그 점유가 완전하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낸다(탈주체화). 이 수치는 행동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민씨는 결국 돈을 써서 매도증서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수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수치의 균열은 이 장면에서 여러 겹으로 반복된다. 민씨의 아내는 “사람은 늙으면 고만이라구요. 늙마에 혼자 산다는 게 딱한 줄 아셨으면요”라고 말하면서도 노인의 빨래를 “거칠게 빼앗는다”⁷⁹⁾. 변씨덕은 노인이

76)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19쪽.

77) Agamben,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Zone Books, 1999, p.55.

78)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19쪽.

79)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11쪽.

저녁을 굶는 날 문을 두드려 음식을 가져다주고 찢어진 옷을 꿰매주던 인물로 묘사되지만, 방 문제를 둘러싼 흥정에서는 어김없이 자신의 이해 관계를 계산한다. 이 모순들은 등장인물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들은 예외상태의 폭력이 인간의 관계성을 완전히 소거하는 데 끝내 실패한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노인의 임종 직전, 가방 속에서 유가족의 주소가 발견되는 장면이다.

“사고무친의 노인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자기네의 무심했던 행동을 후회했으나, 나중에 유가족에게 원망받지 않도록 서로를 변명해주기로 약속하고 나서 그들은 세 통의 전보를 쳤다.”⁸⁰⁾

‘후회했으나’와 ‘서로를 변명해주기로 약속하고’ 사이의 긴장—여기서도 수치의 구조가 응축되어 있다. 후회는 수치의 감각이 발화하는 순간이다. 그것은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음을, 타자와의 연결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즉각 집단적 자기 방어의 언어로 봉합된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아감벤이 논하는 레비의 수치 개념과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레비가 해방 후 러시아 군인들의 얼굴에서 목격한 수치는—“정의로운 자가 타인의 범죄 앞에서 경험하는 수치”⁸¹⁾—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자가 느끼는 것이었다. 반면 적산집 사람들의 수치는 자신이 공범이었으면서도 그 공범성을 다시 자기 정당화의 언어로 덮는 수치다. 같은 구조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이 역전이야말로, 황석영의 서사가 아감벤의 이론적 틀을 변주하고 심화시키는 지점이다.

이 네 장면을 관통하며 반복되는 질문은 하나다. 이 수치는 단순한 심리적 잔재에 불과한가? 아감벤, 레비, 그리고 쿼터의 논의를 종합할 때,

80) 황석영, 『한씨연대기』, (주)문학동네, 2020, 20쪽.

81) Agamben,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Zone Books, 1999, p.88.

수치는 오히려 생존자가 예외상태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것을 막는 균열로 기능한다.

네 인물군이 보여주는 수치의 양상은 각각 다르다. 학장에게는 수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그는 회색지대의 논리를 가장 완전하게 체화한 인물이다. 서학준에게는 수치가 억압된 채 자기 정당화의 언어로 전환된다. 김가·박가에게는 수치의 흔적이 끊임없는 단언과 정당화의 필요성으로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적산집 사람들에게는 수치가 가장 명시적으로—‘야박한 거 같구만’, ‘후회’라는 말로—발화되지만, 동시에 가장 신속하게 집단적 자기 방어로 봉합된다. 이 차이들 자체가 회색지대의 내부 다양성을, 그리고 예외상태가 인간을 균질하게 변형시키는 데 실패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권터가 불량쇼를 경유하여 결론짓듯이, “생명은 결코 벌거벗은 것이 아니”⁸²⁾라는 명제는 이 소설에서 역설적 형태로 입증된다. 예외상태의 폭력은 인간의 관계성을 철저히 파괴하려 하지만, 수치의 균열—‘야박한 거 같구만’이라는 한마디, ‘후회’라는 감각, 서학준의 끊임없는 충고, 김가의 거듭되는 단언—이 그 파괴가 완전하지 않음을 증거한다. 수치를 담지한 몸은 여전히 타자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이야말로 예외상태의 논리에 대한 가장 취약하고 가장 완강한 저항의 흔적이다.

5. 결론

본고는 황석영의 『한씨연대기』를 조르조 아감벤의 세 가지 핵심 개념—예외상태, 벌거벗은 생명, 수치—을 분석 틀로 삼아 읽으면서, 이 소설이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몸의 정치성’과 ‘윤리적 잔여’의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하는 텍스트임을 논증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한국전쟁이라는 예외상태가 어떻게 특정한 몸들을 선별적

82) Lisa. Guenther, *Resisting Agamben: The Biopolitics of Shame and Humiliation*,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vol.38, no.1, 2012, p.17.

으로 노출시키지는지를 분석했다. 총동원령, 특별동과 보통병동의 공간적 분리, 대동강 도강 장면은 모두 예외상태가 몸들을 계층화하고 처분 가능한 존재로 재편하는 구체적 기제임을 보여주었다. 명단에 포함된 몸과 배제된 몸 모두가 소멸의 서로 다른 경로 위에 배치된다는 분석을 통해, 예외상태의 논리가 포함/배제의 단순한 이분법이 아님을 밝혔다.

3장에서는 예외상태가 한영덕의 몸을 단계적으로 별거벗은 생명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을 추적했다. 군사정보대의 보고서와 익명의 투서라는 두 문서가 어떻게 한영덕을 법적·정치적 주체의 자리에서 추방하는지, 취조 장면이 어떻게 그의 몸을 ‘교수도 의사도 피난민도 아닌 고깃덩이’로 환원시키지는지를 분석했다. 또한 법 형식이 유지되면서도 그 내용이 비워지는 재판 장면을 통해, 한영덕이 법의 내부도 외부도 아닌 역설적 위치에 구조적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논증했다.

4장에서는 동일한 예외상태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자들이 타자를 희생시키는 구조—아감벤이 레비를 따라 명명한 ‘회색지대’—를 네 인물군을 통해 분석했다. 의학부 학장, 서학준, 김가-박가, 그리고 적산집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회색지대를 점유하며, 그 각각의 자리에서 수치의 균열이 상이한 양상으로 드러남을 보였다. 수치가 행동을 중단시키지 않더라도 그것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예외상태의 논리가 인간의 관계성을 완전히 소거하는 데 실패했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본 장의 핵심 논지였다.

이 세 층위의 분석을 종합할 때, 『한씨연대기』는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예외상태가 어떻게 특정한 몸을 별거벗은 생명으로 환원시키고, 그 과정에 연루된 자들에게 어떠한 윤리적 잔여—수치—를 남기는지를 구조적으로 형상화한 텍스트다. 이러한 독해는 황석영 문학 연구에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기존 연구가 『한씨연대기』를 분단 이데올로기의 희생 서사나 리얼리즘적 역사 재현으로 읽어온 틀을 보완한다. 한영덕의 수동성은 단순한 수난의 형상이 아니라, 예외상태가 별거벗은 생명을 생산하는 구조적 결과로 독해될 때 비로소 그 정치적 의미가 드러난다. 둘째, 한영덕을 둘러싼 인물들의 행위를 도덕적 단죄나 민중 연대

의 실패로 읽는 대신, 회색지대라는 개념을 통해 예외상태가 인간 관계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형하는가의 문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소설의 윤리적 긴장이 개인의 선악 판단이 아닌 구조와 주체 사이의 뒤얽힘에 있음을 밝힌다.

현실적 차원에서도 이 독해는 유효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아감벤이 지적하듯, 예외상태는 역사 속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현대 통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지속된다. 전쟁과 분단 상황이 개인의 몸을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하면서도 법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구조는, 오늘날에도 난민, 이주노동자, 비시민권자의 몸을 둘러싼 정치적 조건 속에서 반복된다. 『한씨연대기』를 이 구조의 문학적 형상화로 읽는 것은, 1970년대 한국 문학을 동시대적 문제의식과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다만 본고의 논의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아감벤의 개념들이 주로 나치즘과 서구 민주주의의 위기를 배경으로 형성된 것인 만큼, 한국전쟁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조건과의 긴장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아감벤의 개념을 한반도의 맥락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이론적 마찰과 생산적 불일치에 대한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본고는 텍스트 내적 분석에 집중한 나머지, 1972년 발표 당시의 문학사적·정치적 맥락—1970년대 초 한국의 비상통치 체제와 소설이 맺는 동시대적 관계—그리고 이후의 판본 변화가 소설의 의미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황석영, *한씨연대기*, 문학동네, 2020.

조르조 아감벤 지음, 정문영 옮김,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문서고와 증인, 새물결*, 2012.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1922);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Giorgio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Giorgio Agamben, *Remnants of Auschwitz: The Witness and the Archive*, Zone Books, 1999.

Vik Kanwar, Review of Giorgio Agamben, *State of Exception*, *Int'l J Const Law*, Vol.4, No.3 2006.

<참고 논저>

김미영, 「이념의 선택과 상실의 기로 : 『한씨연대기』와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 『공연과리뷰』 제44호, 현대미학사, 2004, 138~143쪽.

김정은, 「황석영 소설 연구 년대 중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석사청구논문, 2013.

안남연, 「황석영 소설의 역사인식과 민중성 - 황석영의 1970년대 소설 연구」, 『상허학보』 13, 상허학회, 2004, 507~526쪽.

유승환, 「황석영 문학의 언어와 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박사학위청구논문, 2016.

유혜중, 「황석영의 『한씨연대기』(1972)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민정기의 <한씨연대기>(1984)」, 『美術史學』 第48號,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24, 177~205쪽.

임기현, 「텍스트 개작을 통해 본 작가의 분단의식 변모과정 : 황석영의 <한씨연대기>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5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289~319쪽.

Lisa Guenther, *Resisting Agamben: The biopolitics of shame and humiliation,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38(1), 2012, pp.59-79.

Stephen Humphreys *Legalizing Lawlessness: On Giorgio Agamben's State of Exception*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7(3), 2006, pp.677-687.

Abstract

Bare Life and the Subjectification of Shame in The Chronicle of Mr. Han

LI QIAN

(Seoul National University)

Ru Yi

(Southwest Minzu University)

This paper reads Hwang Sok-yong's "The Chronicle of Mr. Han" (1972) through Giorgio Agamben's three key concepts—state of exception, bare life, and shame—to argue that the novel raises urgent questions of bodily politics and ethical remainder that have been largely overlooked in existing scholarship.

The analysis proceeds on three levels. First, it traces how the state of exception produced by the Korean War selectively exposes and redistributes bodies as disposable through the general mobilization order, the spatial segregation of hospital wards, and the scene of crossing the Taedong River. Second, it examines how a military intelligence report and an anonymous denunciation letter function as mechanisms expelling Han Yeong-deok from legal and political subjecthood, reading the interrogation scene—in which his body is reduced to "a lump of meat, no longer a professor, a doctor, or a refugee"—through the logic of bare life. Third, it analyzes the gray zone formed by those who survive within the same state of exception—the medical school dean, Seo Hak-jun, Kim and Pak, and the residents of the enemy property house—arguing that the fissures of shame that surface in each figure, however fleeting, bear witness to the failure of the state of exception to fully erase human relationality.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argues that "The Chronicle of Mr. Han" should be read not merely as historical testimony of national division, but as a text that structurally articulates how state violence progressively dehumanizes a single body, and what ethical residue that process inevitably leaves behind.

Keywords: Hwang Sok-yong, The Chronicle of Mr. Han, Agamben, state of exception, bare life, shame, gray zone, bodily politics.

이천(제1저자)

소 속: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li7ian_@naver.com

RU YI(교신저자)

소 속: 중국서남민족대학교 외국어문학과

전자우편: ruyi1017@126.com

논문투고일 2026. 05. 09 / 심사완료일 2026. 06. 13 / 게재결정일 2026. 06. 14